

제언



## 개방화시대 어촌사회의

## 변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송 영 택 |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문화관광센터 마케팅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물 관세양허에서는 총 4백 7개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 58개와 10년 이상 양허를 둔 품목이 모두 1백 52개였다.

협상의 결과를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참치통조림 등 일부품목의 수출 증대 및 수출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리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민어, 넙치, 명태, 볼락, 오징어, 꽃게 등 민감 품목의 관세철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생산량 감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개방에 따른 양적 피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업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개방화 시대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

업을 터부시할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이 종사하는 수산업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어촌지역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개방화 시대! 우리 어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는가!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정부를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에서 여러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별도의 언급을 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해 본다.

## 1. 생산의 장 관리에서 공간 자원 관리로

최근 웰빙바람의 영향으로 수산물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의 전체 소비는 4,169천톤(2005년 기준)으로 2001년 3,260천 톤 대비 약 2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순 소비량도 48.1kg으로 세계수위를 다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3,032천 톤(2006년)으로 자급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수산물, 소위 지역 제철 수산물과 계류, 새우류, 활어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흥미로운 통계수치가 있다. 바로 어촌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2005)에 따르면 어촌관광 참여 인구는 2001년 786만 명에서 2005년 95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 1천 48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6.3%인데 비해 어촌관광 참여 인구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8.4%로 그 증가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어촌어항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은 조사한 결과, 그 첫 번째가 해수욕이었으며 두 번째가 수산물의 시식과 쇼핑이었다. 이는 어촌관광의 매력이 해수욕장 방문이라는 계절적 수요를 제외하면 먹거리(수산물), 특히 어촌현장에서 먹는 싱싱한 수산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어촌어항에 기능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어촌어항이라는 공간이 국내산 우수수산물을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시키는 유통 공간으로, 또 일반국민들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위와 같은 시대의 흐름

을 반영, 어촌스러움(Amenity)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을 개발하고 현지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는, 즉 생산의 장 관리에서 공간 자원 관리로 개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

### - 수산업에서 수계(水界)산업

과거 수산업은 1차 산업에 국한되어 단백질 생산에만 전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도 증산에 필요한 연근해 어업의 세력 강화, 양식어업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르는 어업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은 과잉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최근엔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는 이러한 생산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어업인과 어촌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단순 수산업을 넘어 물과 관련된 모든 산



업으로 시각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수계산업(水界産業)으로의 개념 확대이다.

해양생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바다와 연관된 과학, 역사, 문화, 유통, 마케팅, 관광 등과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해 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선점적으로 우리 어촌에서 수산업을 영위해 오던 어업인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지원하여야 한다.

수계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도 수협, 지자체 등을 통한 운영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원의 발굴, 사업화, 이에 따른 관리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또 어업인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외부 민간자본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어촌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 3. 통합적 수산업의 기반 구축

개방화시대에는 수계산업으로의 개념 확대와 동시에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어촌, 어항, 어장의 유기적 관리도 필요하다. 숙련된 어업인들이 자원이 풍부한 어장에서 조업 활동을 하여, 잘 정비된 어항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유통시

키고, 정주환경이 쾌적한 살기 좋은 어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가도록 어촌어항어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째로 어항 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어항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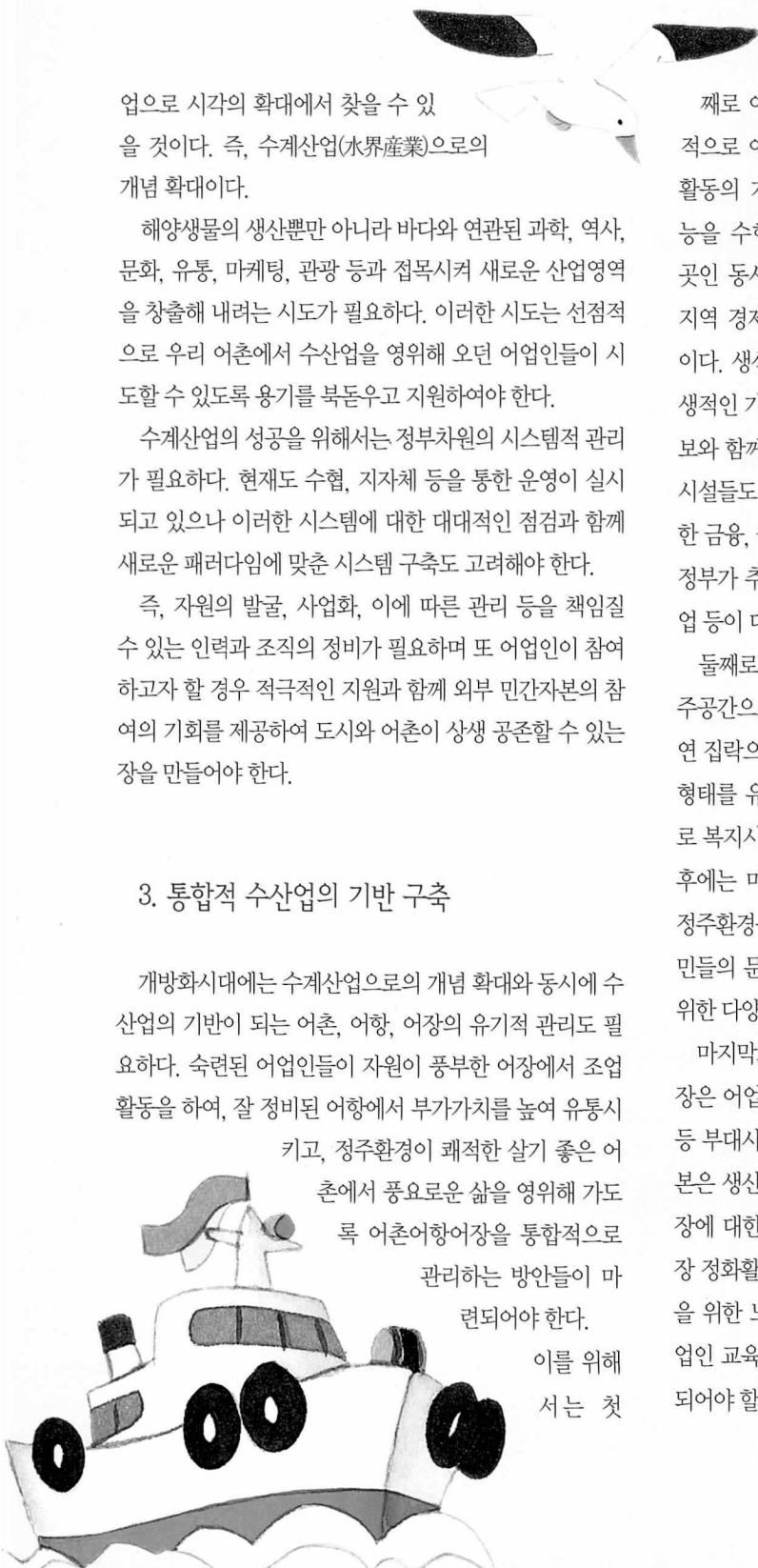
활동을 수행하는 곳인 동시에 어촌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다. 생산물의 안전하고 위

생적인 가공, 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능의 확보와 함께 최근 증가세에 있는 어촌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시설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의 편익도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다기능 어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어촌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촌의 대부분은 자연 집락으로 형성되어있어 생활기반시설들이 매우 취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로 복지시설, 생산기반, 소득시설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마을구획정리, 하수정화, 도로개선, 주택개량 등 정주환경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또 주민들의 문화지체 해소, 의료혜택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장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어장은 어업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터전이다. 최근 어촌관광 등 부대사업에 어업인들이 관심을 쏟고 있으나 어촌의 근본은 생산활동에 있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어장에 대한 유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장 정화활동의 지속적인 시행과 어장 모니터링, 자원 증강을 위한 노력, 자율관리 어업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며 어업인 교육도 필수적이다. 또 양식어장의 정화활동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인적 역량의 강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어촌은 고령화, 양극화, 공동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역량 역시 도시 지역민 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업인 대상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시대에 어촌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좀 더 양호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해양 수산인을 양성하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완도의 수산벤처대학이 기대가 된다.

최근, 젊은층들이 어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어촌은 이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층이 어촌에서 미래를 설계하고자할 때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적 갈등 관리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어촌 내부의

갈등은 주민 스스로 정리하여 나아가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어촌체험마을컨설팅 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보이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어촌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어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변화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제는 어촌지역에도 칼바람처럼 매섭게 몰아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업인들 스스로 박탈감에서 벗어나야 하며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촌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화시키는 작업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어업인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자산들을 소중하다고 느낄 때 블루오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어촌은 활기로 넘쳐나는 공간으로 다시태어 날 수 있을 것이다. 